

정유업계, SAF 사업 첫 걸음… “세제·인센티브 등 지원 절실”

〈바이오항공유〉

친환경 바이오 연료사업 확대 본격화
글로벌 경쟁 위한 구체적 지원 필요
R&D 지원 확대 등 투자 확대해야

국내 정유업계가 친환경 바이오항공유(SAF) 사업 진출에 나섰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들이 SAF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은 미국과 일본 등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3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를 통해 정유사가 SAF를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설비 투자 지원책이 마련된다.

SAF는 폐식용유 등 바이오 원료를



대한항공 항공기에 급유가 진행되는 모습.

/대한항공

기반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연료다. 특히 기존 원유 기반 항공유 대비 80%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유업계는 SAF사업에 적극 참여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폐자원 기

반 원료 회사 대경오엔티를 인수해 SAF 원료 기반을 마련했고 GS칼텍스는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SAF 실증에 참여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삼성물산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차세대 SAF 개발을 계획중이며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일부 설비를 SAF 주원료인 HVO 생산설비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신규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등 국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은 지난 2020년 무렵부터 법과 제도를 정비해 SAF시장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SAF에 대한 세금 공제를 통과시키는 등 세제 혜택을 주며 SAF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SAF 생산 시설 수확장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5년 동안 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책정하기도 했다.

일본 역시 SAF사업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항공사에 SAF를 공급할 수 있는 제조, 원자재, 운송 인프라 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일본 기업이 참여한 해외 사업에서 생산한 SAF 수입품에 대한 면세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국내 정책은 선진국 정부와 기업이 구체적인 정책·사업 목표에 맞춰 앞서 나가는 것 대비 뒤쳐졌다는 평가가 따른다. 해외 주요국이 SAF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국내는 아직 지원 확대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SAF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전망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SAF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실증연구를 많이 해왔고 최근에는 법적 제정도 마련됐다”며 “이러한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세제 지원이나 인센티브 등 혜택을 확대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다면 국내 업계도 SAF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90여종, 골라서 체험하는 재미”… 색다른 인디게임 ‘후끈’

크 포

버닝비버

동대문 DDP서 페스티벌 진행
튜토리얼 존·버닝시티 등 구성
인디게임 개발자들 긍정적 평가

인디게임 창작자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성장하는 기회의 장 ‘버닝비버’가 올해 2회차를 맞이했다.

버닝비버는 스마일게이트그룹이 주최하고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이 주관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인디게임 페스티벌이다. 올해 버닝비버 오프라인은 서울 동대문 DDP아트홀1관에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열렸으며, 온라인(스토브인디)에서는 오는 10일까지 열린다.

지난 1일 버닝비버 현장을 찾았다. 버닝비버 현장입구부터 페스티벌을 관람하기 위한 관람객들로 긴 대기줄이 이어졌다.

올해 버닝비버의 슬로건인 ‘비버월드’에 뛰어든다(Jump Into Beaver World)’는 게임 창작자, 개발자, 업계종사자, 관람객들이 모두 인디게임을 즐기자는 뜻을 담았다.



비주얼 노벨, 어드벤처 게임 ‘편집장’을 체험해보고 있는 기자의 모습.

/최빛나 기자

세계관 체험이 가능한 ‘튜토리얼존’을 시작으로 ▲기획전시 ‘ver0.0.1’ ▲온오프라인 전시부스 공간 ‘버닝시티’, ‘버닝빌리지’ ▲무대 이벤트 공간 ‘비버광장’ ▲버닝비버 굿즈샵 ▲창작자 전용라운지 등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크고 작은 다양한 콘셉트의 귀여운 비버캐릭터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비버는 열심히 나무를 모아 자신이 몸집보다 20배 더 큰 댐을 짓는 자연의 건축가로 유명한데 게임을 만드는 창작자가 비버와 비슷하다는 것을 더욱 강

조하고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점은 관람객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시연해 볼 수 있는 장소로 결정했다. 또 80개에서 90개 부스로 늘어났다는 점 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행사장 입구에는 ‘비버월드’의 모험’을 주제로 한 포토존, 10종의 기획 전시가 있었다. 포토존부터 기획 전시, 부스 내 게임 시연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해당 부스에서는 대부분의 게임들을 시연해 볼 수 있다.

가장 인상깊었던 게임은 플로리스 다크니스다. 플로리스 다크니스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게임이다. 현장에서는 시각이 아닌 청각에 의존해 암흑속에서 미로를 탈출해야 한다. 실제 PC에는 검은 화면이었고 헤드폰을 착용한 채 손가락만 움직여야 했다.

현장에서 만난 박재형 올드아이스 대표는 “우리의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 기업이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이다. 이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올해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게임사 담당자들은 올해 페스티벌 참가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이라는 평이다. 모 게임사는 “다른 곳에서 쉽게 받아볼 수 없는 지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먹는 부분부터 관리 감독까지 전반을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에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체크 및 확인했다. 인디게임 개발사들 입장에서 개발해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는데 이같은 기회를 통해 알릴 수 있게 돼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제네시스 엑스 그란 베를리네타 비전 그란 투리스모 콘셉트

제네시스

레이싱 게임용 콘셉트 車
디자인 철학 담아 첫 선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디자인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레이싱 게임용 콘셉트 모델을 선보였다.

제네시스는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e스포츠 토너먼트 ‘그란 투리스모 월드 시리즈’ 파이널 경기에서 ‘제네시스 엑스 그란 베를리네타 비전 그란 투리스모 콘셉트’(이하 제네시스 엑스 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를 실물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그란 투리스모 월드 시리즈’는 세계적인 디지털 레이싱 게임 ‘그란 투리스모 7’의 글로벌 챔피언십 대회로 올해 10회째를 맞이했다. 제네시스는 지난 2022년부터 그란 투리스모의 공식 파트너사로 활동하며 제네시스 엑스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GR3 콘셉트, G70을 기반으로 한 GR4 GT 등을 게임 내에서 선보인 바 있다.

‘제네시스 엑스 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는 제네시스의 고유한 디자인 언어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감성적으로 구현했다. 제네시스만의 디자인 요소를 레이싱 게임 특색에 맞게 반영해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차량 전면부 디자인은 두 줄의 쿼드램프를 활용해 새롭게 선보이는 크레스트 그릴 형상이 특징적이다. 후면부는 제네시스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타원 형태의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공기역학을 고려한 리어 스포일러를 적용해 안정감 있는 고속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그룹 ‘기업시민’ 경영 아이디어 공유

‘기업시민 레벨업 그라운드’ 발표대회

포스코그룹이 대학생들을 초청해 ‘기업시민 레벨업 그라운드’ 발표대회를 열고 기업시민 경영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시민 레벨업 그라운드는 ‘기업시민 경영과 ESG’ 과목을 수강한 대학생들이 기업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를 서로 배우고, 포스코그룹의 멘토 사원들과 함께 기업시민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를 나누는 자리다.

12월 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김성근 포스텍 총장과 2023년 2학기에 ‘기업시민 경영과 ESG’ 과목을 운영한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순천대, 제주대, 포스텍, 한동대, 한양대(가나다순) 등 12개 학교 학생들, 협업 프로젝트를 함께한 포스코그룹 임직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양성운 기자

에코프로비엠, 44조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

삼성SDI에 5년간 대규모 공급

에코프로비엠과 삼성SDI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며 협력관계를 굳건히 다졌다.

3일 에코프로비엠에 따르면 지난 1일 삼성SDI와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비엠 본사에서 대규모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5년이며 공급 금액은 최근

공급가 평균으로 계산해 약 44조원이다.

에코프로비엠의 이번 계약은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생산 물량은 물론 수익성 확보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프로비엠은 2024년 물량은 포함 캠퍼스에서, 2025년부터는 헝가리 공장의 완공에 맞춰 현지에서 삼성SDI 헝가리 공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